

##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시·군 유치 '불꽃 경쟁'

연 2만여명 연수·건축비 500억  
도, 평가지표 공개 공정성 확보  
장흥·강진·영암군은 연대 합의

지자체 간 연대, 부지 무상제공 약속 등 전남도공무원교육원 유치를 둘러싼 도내 시·군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전남도와 교육원 측은 자칫 행정력 낭비와 후보지 선정 후 부작용을 염려해 과도한 유치 행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공무원교육원 이전 부지는 오는 12월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지역낙 후, 개발용이성, 입지 쾌적성 등이 핵심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22개 시·군 전남도공무원교육원 담당 직원들을 불러 이전 후보지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세부지표는 균형발전 기여도(25점), 이전 비용(20점), 개발용이도(20점), 접근성(20점), 교육환경(15점)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이다. 이들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 평가단(포(포집단) 100명 가운데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을 후보지 제안 시·군이 타구공 추천 방식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교육원 측은 오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후보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확정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는 신청 후보지 현지조사 후 평가지표에 의해 일괄 실시한 뒤 현장에서 점수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을 감안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

서 세부지표 사전 공개, 평가단 시·군 직접 추천, 평가 결과 당일 공개 등을 들고 나온 것이다. 각 시·군은 교육원 신축에 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연 15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2만 3000여 명에 이르는 교육 대상자들이 찾는 교육원을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말 장흥, 강진, 영암 등 3개 군은 교육원 유치와 관련 공동 대응해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목포시는 지난 2010년 조성 이후 하하벌판으로 방치돼 있는 옥암지구 대학부지(4만9600㎡)의 무상 제공을 약속하는 등 유치 전략도 제각각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교육 대상자와 직원 대부분이 거의 모든 시·군에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전남도내 도로 여건이 나아졌다"며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각 시·군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평가 지표 가운데 접근성과 이전비용의 영향력이 높고, 정량평가인 지역낙후도(12점)와 환경의 쾌적성(10점) 등이 중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최근 전남도내 교통여건이 나아지면서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화순·담양(소요시간 34분)과 가장 먼 완도(154분)·진도(121분)·해남(114분)과 큰 차이가 없는데 지자체 지원 계획 항목에서 부지 제공을 제외하면서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14개 항목 가운데 KDI 발표 지역낙후도가 12점으로, 14개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아 22개 시·군 가운데 지역낙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10점 이상 항목은 환경의 쾌적성(10점), 지역적 접근성(10점), 광역발전 효과(10점), 소요소(10점)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아파트 단지내 축구 갈등 ▶6면



유라시아 대장정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 비주류 퇴장... 혁신안 '반쪽 통과'

새정치 중앙위, 표결없이 만장일치... 문재인 재선임 1차 관문 넘어  
비주류 강력 반발 속 추석 전 당원·국민 여론조사... 진통 계속될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주류 진영 의원들의 집단 퇴장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표결 없이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혁신안 통과와 당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재선임을 묻겠다고 밝힌 문 대표의 1차 관문을 넘어섰다. 하지만 비주류 진영은 혁신안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진이 상당한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공천혁신안'과 지도부 체제 변경을 당헌에 반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천혁신안은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국민공천단 10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지도부 체제도 내년 4월 총선 이후, 현

행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전국 5개 권역 대표와 여성·청년·노동·민생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11명의 대표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초 혁신안 처리는 당초 주류와 비주류 진영의 '세 대결'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주류 진영의 완승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대표의 거취와 연결된 인사 문제"라며 무기명 비밀 투표를 요구하면서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대표는 중앙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 참석한 중앙위원들 절대 다수가 혁신안에 찬성을 해서 혁신안이 통과됐다"며 "제대로 혁신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중앙위원들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위를 앞두고 "혁신안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던 문재인 대표는 이로써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추석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당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선임 여론 조사를 남겨둔 상황인데다 비주류 진영의 반발이 불거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새정치연합 혁신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런 혁신의 기틀을 토대로 통합·단결을 향해 나아가는 작업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금남공원 LED 조명 터널 '제12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를 앞두고 형형색색의 꽃 등으로 수놓은 LED 조명 터널이 설치된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 산책로에 16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총장축제는 다음달 7일~11일까지 닷새간 총장로·금남로 일대에서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대박 예감'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오늘 개막

10월 31일까지 45일 대장정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5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17일 개막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지난 2010년 개막까지 5년여의 준비를 끝마치고, 오늘

부터 4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7시 추성경기장을 메인 무대로 식전행사와 공식행사, 식후행사로 진행된다.

오후 6시 시작되는 식전행사는 해양경찰 의장대 공연과 함께 국립 루마니아 오케스트라와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대나

무악기 협연이 펼쳐져 박람회 개막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게 된다. 이후 개막식에 따른 공식행사로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초청인사가 참여해 대나무 씨앗을 소재로 한 주제 퍼포먼스와 봉황을 소재로 한 대형 홀로그램 세례모니가 이어진다. 특히, 식후행사인 축하공연에는 국내 유명 아이

돌그룹인 씨스타와 B1A4, 엠블랙, 달샤벳, 워너비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담양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대숲에서 찾은 녹색미래'를 주제로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축원 및 전남도립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 신성자동차(주) 광주 서문점 | 1041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W, 자동7단), 복합연비 7.6km/ℓ (도시연비: 6.7km/ℓ, 고속도로연비: 9.1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3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자,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